

#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동향

'24.8., KIND 기획조정실 혁신정책팀

※ 출처

- Electricity 2024 Analysis and forecast to 2026(IEA, 2024.1.)
- Promising Prospects: SEA countries step up data centre deployments (<https://southeastasiainfra.com/promising-prospects-sea-countries-step-up-data-centre-deployments/>)

## I 데이터센터 현황

-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
- 전 세계적으로 8,00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미국(약 33%), 유럽(16%), 중국(10%) 중심으로 분포
  - 기타 지역 중 동남아시아 시장은 정부 지원정책과 비용효율적인 건설로 '22년 약 97억불에서 '28년까지 142억불로 성장 예상(연평균성장률(CAGR) 6.57%)

<지역별 데이터센터 분포 및 현황('24. 1월)>

지역	데이터센터 수	비율(%)
미국	약 2,640개	33%
유럽	약 1,280개	16%
중국	약 800개	10%
기타 지역	약 3,280개	41%

<국가별 데이터센터 현황>

국가	주요내용
미국	- 가장 큰 데이터센터 허브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에 위치 - 버지니아의 경우, '21년 데이터센터 부문 확장이 주(州) 경제를 주도하며 신규 투자 중 62%를 차지,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북부 버지니아는 특히 미국에서 가장 큰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연간 10억불의 지방세 수익을 창출, 아마존의 '40년까지 350억불 규모의 확장 계획과 같은 투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성장세가 높아짐
유럽	전체 - 약 1,240개의 데이터센터가 '22년에 운영되었으며, 주로 프랑크푸르트·런던·암스테르담·파리·더블린의 금융센터에 집중되어 있음
	아일랜드 - 현재 82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 향후 65% 성장 예상되며 데이터센터 14개 건설 중, 40개 건설단계 예정임 -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12.5%)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부분의 확장에 유리함(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 21.5%)
	덴마크 - 현재 34개의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절반 코펜하겐에 위치
북유럽	- 북유럽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나라는 스웨덴으로 60개의 데이터센터

국가	주요내용
	중 절반이 스톡홀름에 위치 -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거의 모든 전기를 저탄소 원전에서 생산하므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참여 더욱 확대 가능
중국	- 5G 네트워크망의 빠른 확장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도입으로 산업 확장 예상
필리핀	- 필리핀은 정부의 디지털화 노력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로 성장 중인 주요 신흥 시장 - 시장의 성장은 정부의 디지털화 촉진과 전자정부 이니셔티브,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증가,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솔루션 수요 증가에 기인 - 마닐라가 주요 허브, 다른 도시에서도 빠르게 확장 중
인도 네시아	- 대규모 인구 및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성장 중 - '23년 20억 6천만 달러에서 '28년까지 39억 8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 14% 기록 예상 - 아마존 웹 서비스(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등 다국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정부는 Tier 4* 인증을 받은 4개의 국가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
기타 말레이 시아	- 데이터센터 시장은 '23~'29년 연평균성장률(CAGR) 16.64% 기록 예상 - 디지털화와 비용 효율성, 숙련된 인력 가용성이 성장 촉진 - Tier 3* 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 중
싱가 포르	- 약 100개의 데이터센터, 1,195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등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 구조를 갖춘 - 데이터센터는 약 25개의 해저 케이블로 주요 시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추가로 13개의 해저 케이블 건설 중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증가로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과 같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데이터센터 설립 - Tier 3* 및 Tier 4* 데이터센터가 시장을 주도
태국	- 인수합병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촉진으로 확장 중 - '23~'28년까지 5.2%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3년부터 '27년까지의 투자 진흥 계획(BOI)을 통해 데이터센터 투자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유치 노력 중

\* 데이터센터의 성능, 효율성, 신뢰성을 평가하는 분류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센터인 Tier 1에서 최고 수준의 센터인 Tier 4까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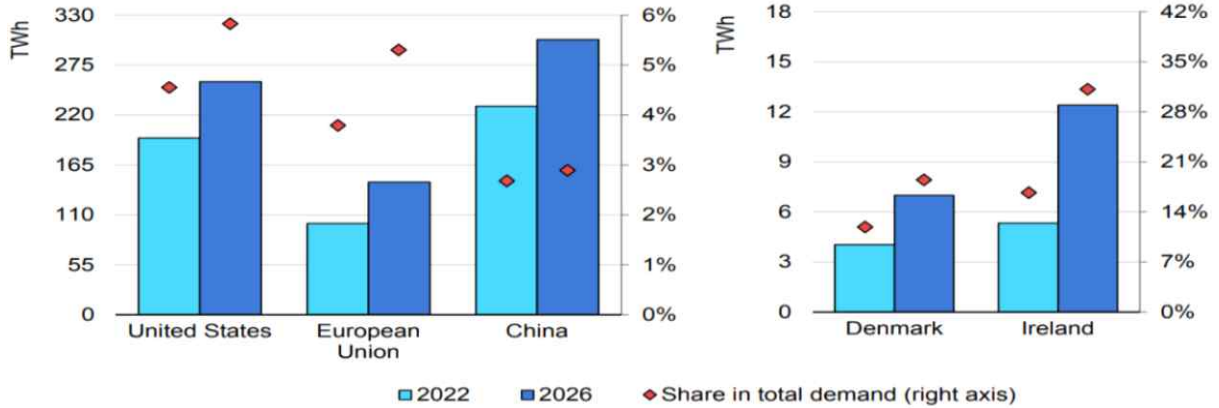
## I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 □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현황

-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전력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여러 지역에서 전력 수요 증가의 중요한 요인
- '22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약 460TWh<sup>1)</sup>로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2%를 차지

1) 1테라와트시(TWh) 규모 : 약 25만~28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 한국 연간 총 전력 소비량의 약 0.2% 해당

<국가별 데이터센터 전기 소비량 및 전체 전력 수요에서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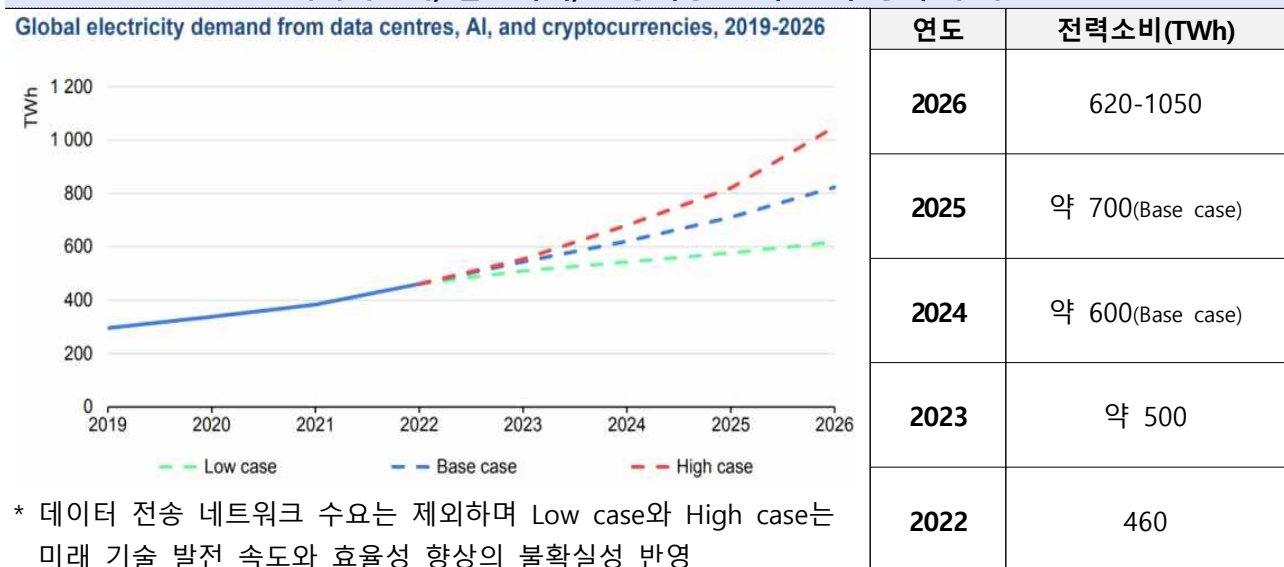


※ 출처 : Electricity 2024 Analysis and forecast to 2026(IEA, 2024.1.)

##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

- 세계 전력수요는 '22년 27,080TWh에서 '26년 30,601TWh로 13% 늘어날 것이며, 기술 발전과 디지털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다변할 것으로 예상됨
-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26년 4.4%로 '22년 2.1%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30년에는 10.2%까지 확대 전망
- '26년까지 데이터센터·암호화폐·인공지능의 전력소비는 620TWh~1,050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800TWh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는 '22년 대비 160~590TWh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최소 스웨덴 또는 독일 한 나라를 추가하는 것과 동일)

데이터센터, 암호화폐, 인공지능 전력 소비 증가 추이



\*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수요는 제외하며 Low case와 High case는 미래 기술 발전 속도와 효율성 향상의 불확실성 반영

※ 출처 : Electricity 2024 Analysis and forecast to 2026(IEA, 2024.1.)

**<국가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

국가	주요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약 200TWh의 전력을 소비(전체 전력 수요의 약 4%)한 미국의 데이터센터는 '26년까지 약 260TWh의 전력을 소비(전체 전력 수요의 약 6%) 예상</li> <li>- 북동부 주 지역 송전 조직(PJM)은 데이터센터가 점점 전력 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여름 최대부하 '24년 151GW에서 '34년 178GW로 증가 예측</li> <li>- 5G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경쟁력 있는 주(州) 세금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더욱 증가 예상</li> </ul>	
유럽	유럽 연합	- '22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약 100TWh(전체 전력 수요의 약 4%)에서 앞으로도 상당수의 데이터센터 추가 배치 예정, '26년까지 150TWh로 증가 전망
	아일랜드	- '22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5.3TWh(전체 전력 소비의 약 17%)를 차지, 이는 도시 주거 전력 소모량과 동일 수준이며 '21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임
	덴마크	- 주로 데이터센터 부문의 확장으로 인해 총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6년까지 6TWh를 소비 예측(전체 국가 전력 수요의 20% 비중)
	북유럽	-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는 독일·프랑스·네덜란드와 같은 주요 데이터센터 허브에 비해 추운 날씨로 냉방 수요가 감소하고 전기요금이 하락해 전력 비용 절감 장점 - '23.8월 스웨덴 동해안에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데이터센터 계획이 발표, '30년 가동 예정
중국	- 데이터센터 부문의 전력 수요가 '20년 200TWh 대비 '30년까지 2배인 400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6년에는 약 300TWh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기타 지역	말레이시아	- 데이터센터 시장의 IT 부하 용량은 '2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358MW 예상 - '21년 Tier 1 및 Tier 2 시장의 IT 부하 용량은 0.59MW에서 '22년 2.39MW로 증가했으며, '29년까지 3.59M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Tier 3 시장의 IT 부하 용량은 '21년 257.85MW에서 '22년 457.66MW로 증가했으며, '29년까지 1,379.11MW로 성장 예상
	태국	- IT 부하 용량 '21년 71.48MW에서 '29년까지 199.55MW로 성장 예상

**□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주요 원인**

○ (컴퓨팅과 냉각) 주로 2가지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발생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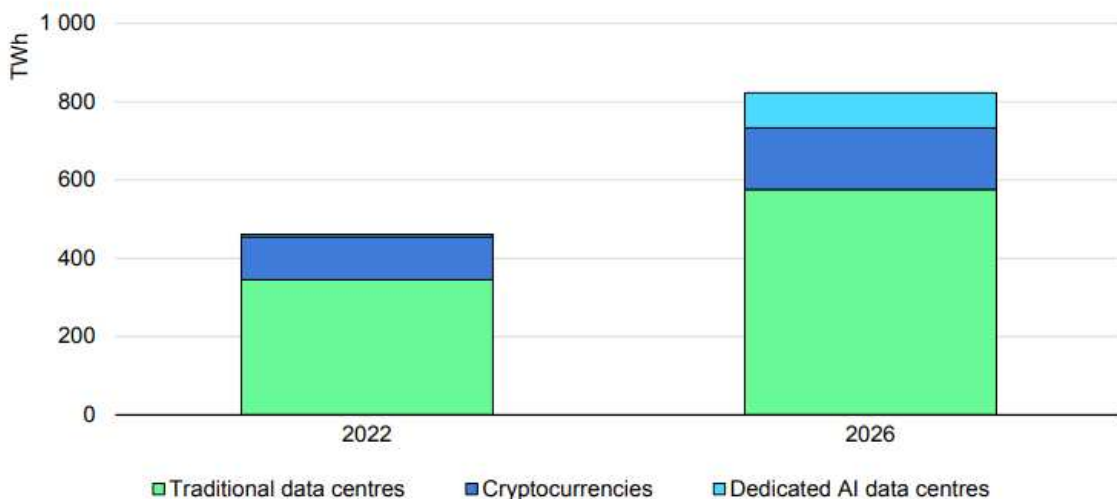
소비항목	전력 소비 비율	소비 내용
컴퓨팅	40%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작동에 필요한 전력
냉각	40%	서버와 기타 장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냉각 시스템 운영
기타 IT 장비	20%	전원 공급 시스템, 스토리지 장치 및 통신 장비

□ (기타) 디지털 新사업(인공지능, 암호화폐) 전력 수요 추가 원인

- 인공지능(AI)과 암호화폐는 전력 소비 증가의 또 다른 주요 원인임
  - (인공지능) AI가 다양한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통합되어 학습과 추론 과정으로 대규모 컴퓨팅 파워를 소모, 전력 수요 증가
    - 일반적인 구글 검색의 평균 전력 수요(0.3Wh)와 OpenAI의 ChatGPT(요청 당 2.9Wh) 비교 시 일일 90억건의 검색을 고려할 때 연간 약 10TWh의 추가 전력 필요 → 검색 도구가 AI를 활용할 경우 전력 수요 10배 증가 예상
    - AI 서버 시장 점유율 약 95%인 엔비디아가 '23년 연간 평균 7.3TWh의 전력을 소비하는 10만대의 서버를 출하 → '26년까지 AI 산업은 '23년 수요의 최소 10배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
  - (암호화폐) 채굴은 고성능 컴퓨팅 장비를 사용, 지속적 전력 소비 유발
    - '22년 암호화폐는 약 110TWh의 전력(전 세계 연간 전력 수요의 0.4%에 해당, 네덜란드 총 전력 소비 규모와 동일) 소비, 기본 시나리오에서 전력 소비는 '26년까지 40% 이상 증가하여 약 160TWh 예상

<2022, 2026년 데이터센터, AI 및 암호화폐 예상 전력 수요 비교>

Estimated electricity demand from traditional data centres, dedicated AI data centres and cryptocurrencies, 2022 and 2026, base case



※ 출처 : Electricity 2024 Analysis and forecast to 2026(IEA, 2024.1.)

### Ⅲ

## 전력 소비 증가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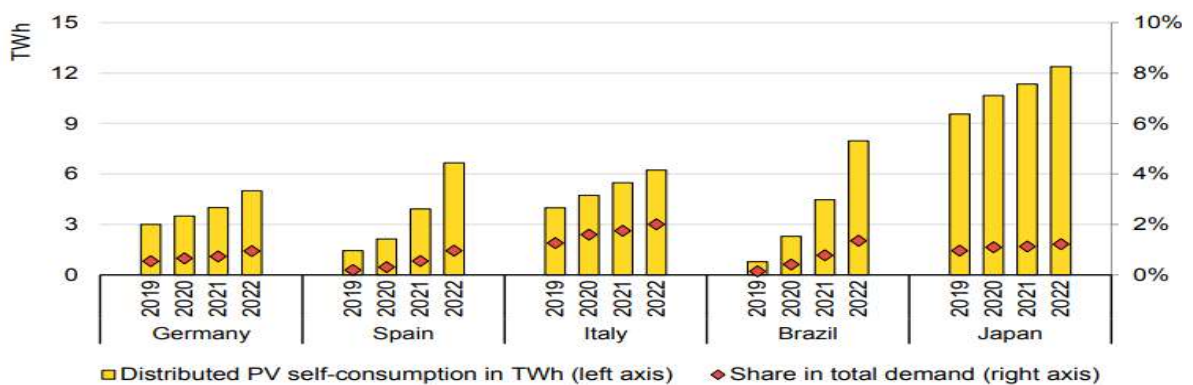
- 데이터센터 급증, AI·암호화폐 열풍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어 각국은 전력 소비 감소, 효율성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및 정책적 지원으로 폭발적인 전력 소비에 따른 대응책 마련 중

### □ (방안1)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 (분산형 발전 확대)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분산형 에너지 발전\* 증가
  - 옥상 태양광 발전 설치 증가 등이 가장 활발하며 '22년 이탈리아의 분산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은 총 전력 수요의 약 2%, 독일·스페인·브라질·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22년 총 전력 수요의 약 1%를 차지
  - \*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체계
  - 자가소비가 가정용 저장 시스템과 함께 배치되어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전력 시스템의 간헐성 문제를 완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국가별 분산형 발전 내 자가소비량 및 전체 전력 수요에서 비중>

Estimated electricity self-consumption in distributed systems and its share in total electricity demand in selected countries, 2019-2022



※ 출처 : Electricity 2024 Analysis and forecast to 2026(IEA, 2024.1.)

- (스마트미터<sup>2)</sup> 도입) 세밀한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형 발전 등에서 자가소비 평가 개선 및 비용 절감 가능
  - 유럽연합에서 '18년 기준 스마트미터 한 대당 설치 비용이 180~200 유로로 스마트미터 도입으로 미터링 지점당 연간 280유로 비용 절감 추정

2) 스마트미터(Smart Meter)는 전기, 가스, 물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디지털 계량기

- 전 세계적으로 '15년 대비 '22년 글로벌 스마트미터 투자는 2배 증가, 스마트미터 수 10억대 초과. 중국은 총 수치의 절반 이상이며 유럽 연합이 16%, 미국이 13% 차지
- (소프트웨어 최적화) 탄소인식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센터 작업을 탄소 배출이 적은 지역으로 이동시켜 운영 경제성 34% 제고 가능
- 구글의 '23년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인식모델과 기존 에너지 효율성 조치 및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결합한 결과 총 전력 소비의 64%를 탄소중립 에너지로 달성할 수 있음을 밝힘
- (하이퍼스케일 전환) 대규모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면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재정 절감 효과 강화
- '23년 대비 '26년까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두 배로 증가하여 2,120억불의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

□ (방안2) 데이터센터 운영에 새로운 냉각 기술과 에너지 효율적인 IT 장비 등 신기술 도입

- 고효율 냉각 시스템, 머신러닝, 양자컴퓨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소비 절감 가능

구분	내용
고효율 냉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도입으로 전력 수요를 10% 이상 감축 가능</li> <li>- 저점도 유체를 사용하여 모든 구성 요소를 냉각하고 직접 수냉식으로 작동할 때 소비량 20%까지 감소 가능</li> </ul>
머신러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신러닝 도입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적응력을 최적화하여 서버의 전력 수요 감소 도움 가능</li> <li>- 구글은 DeepMind AI를 사용하여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전력 소비 40% 절감</li> </ul>
양자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으로 슈퍼컴퓨터를 양자컴퓨터로 대체하면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으로 전력 수요 감축 가능</li> <li>-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많은 처리 능력을 제공하면서도 에너지를 적게 소비</li> </ul>

□ (방안3)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 규제 강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공

○ 다수의 국가에서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 관련 규제 도입

구분	내용
<p>유럽연합 (E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연합의 개정된 에너지 효율성 지침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 및 배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포함</li> <li>- '20년부터 적용된 이전 EU 규정은 데이터센터 환경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 설정</li> <li>- '21년 자율 규제 유럽 이니셔티브인 기후 중립 데이터센터 협약은 '20년까지 부문 내에서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에퀴닉스 등 대규모 운영자를 포함하여 6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 운영자 협약에 서명</li> <li>- '24년부터 운영자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 및 배출에 대한 보고 의무,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폐열 회수 응용 프로그램 도입 필수, '3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해야 함</li> </ul>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에너지법에 따라 연방 정부가 데이터센터 ①에너지 및 물사용에 대한 연구 수행, ②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는 효율성 지표 및 우수 사례 작성, ③에너지 및 물 사용 과거 데이터 공개를 요구함</li> <li>- 에너지부(DOE)는 효율적인 반도체 개발에 자금을 지원, 데이터센터의 냉각 필요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탈탄소화 지원</li> <li>- 주(州) 차원에서는 버지니아와 오리건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탄소 배출 감소를 요구하는 규제 시행 중</li> </ul>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이 인수한 모든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32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도록 요구 예정</li> <li>- '23년 재생가능에너지 5% 점유율 의무 시행</li> </ul>
<p>아일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보호를 위해 아일랜드의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는 '21년 말 데이터센터 그리드(전력망) 연결 신청에 적용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데이터센터의 위치가 전력 시스템의 제약된 지역에 있는지</li> <li>② 최소한의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발전 및 저장 용량을 가져올 수 있는지</li> <li>③ 시스템 운영자 요청 시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요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li> </ul> </li> <li>- 이는 그리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탈탄소화 목표를 염두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원과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운영자에게 연결 제공 목적</li> </ul>



## 참고1

## 국내기업 데이터센터(DC) 참여 현황

### ※ 출처

- Insight Korea 기사 : 건설업계 새 먹거리로 데이터센터 급부상(2024.3.28.)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39>
- kharn 기사 : 삼성물산 건설부문 데이터센터팀 프로 인터뷰(2024.7.8.)  
<https://www.kharn.kr/mobile/article.html?no=25472>
- 매일일보 기사 : SK에코플랜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실적 청신호(2024.4.29.)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837>
- 서울경제 기사 : 창원에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 2026년 준공 예정(2024.5.9.)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4CR9J5D>

구분	내용
삼성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국내 건설사 최초 데이터센터(DC)사업 전담팀 개설</li> <li>- 자체개발 액침냉각시스템*을 활용하여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DC와 글로벌 CSP(Cloud Service Provider) 대상 사업 확대 목표</li> <li>* 비전도성 액체에 서버를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액체냉각 방식으로 공기나 물을 사용한 기존의 냉각 방식 대비 고효율·저전력(약 80%) 열관리 방식</li> <li>- '24년 7월까지 12건의 DC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1건의 DC 프리콘서비스(Pre-construction Service)**를 진행 중</li> <li>**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미리 설계·시공함으로써 시공상의 불확실성이나 설계변경 리스크를 최소화</li> </ul>
DL이앤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호주 DCI Data Centers(DCI)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추진 중, '25년 준공 및 서비스 개시 목표</li> <li>* 서울 금천구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대림이 사업기획부터 부지 선정 및 매입, 인허가 자금 조달 등 개발 사업 전반 주도</li> </ul>
SK에코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데이터센터 전담 조직을 신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센터 상품 개발</li> <li>-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에 집중하며, 싱가포르사와 협력해 인천 부평구에 DC** 건설</li> <li>* 넷제로(Net Zero)-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해, 연료전지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전력 효율은 높이는 것</li> <li>** 싱가포르 디지털엠티와 협력, 120MW(메가와트) 규모로 데이터센터에는 국내 최초로 330kW(킬로와트) 규모의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가 설치돼 보조전원으로 활용</li> </ul>
HDC 현대산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DC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등 DC 개발 및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li> <li>- 보유하고 있는 복합도시 및 발전소의 개발 역량과 데이터 운영 및 기술 경쟁력을 접목해 시공 뿐 아니라 운영까지 영역을 넓힐 계획</li> </ul>
GS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3월까지 네이버 데이터센터, 하나금융그룹 IDC 등을 포함해 총 10건의 다양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진행</li> <li>- '24년 1월 준공한 안양시의 '에포크 안양 센터*'의 경우 '디벨로퍼'로서 데이터센터의 투자·개발·운영에 참여</li> <li>* 총 40MW 용량 규모 시설로 10만대 이상의 서버 보유</li> </ul>
한화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가좌 및 고양삼송 DC를 맡아 디벨로퍼 역량 강화 중</li> <li>- 한화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안다 IDC 컨소시엄은 창원시에 하이퍼스케일 DC* 착공 중, '26년 末 준공 예정</li> <li>* 사업비 4,000억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10만대 이상의 서버 수용 예정</li> </ul>

## 참고2

## 데이터센터 사업정보

❖ 출처 : Infrastructure360 ([refinitiv.com/en](http://refinitiv.com/en))

지역	국가	발표일 (현황)	프로젝트명	사업비 (백만불)
북미	미국	'24.8.20. (Announced)	Hudson Interchange 60 Hudson Street Data Center Expansion Project	미공개
	미국	'24.8.2. (Contract Signed)	EdgeConneX Atlanta Hyperscale Data Center Campus Project	302.3
	미국	'24.7.31. (Announced)	Square IV Project	73.4342
	미국	'24.7.24. (Announced)	Square III Project	78.025
	미국	'24.7.18. (Announced)	Crusoe Lancium Clean Campus Data Center Phase 1 Project	미공개
	미국	'24.7.16. (Announced)	Atlanta Hyperscale Data Center Campus Project	미공개
	미국	'24.7.15. (Contract Signed)	EdgeCore Hyerscale Data Center Project	653.219
	미국	'24.7.12. (Announced)	Square II Project	67.3663
	미국	'24.7.11. (Announced)	Square I Project	94.8666
아시아 태평양	일본	'24.8.26. (Agreement Signed)	Singtel / Hitachi Japan Data Centers Project	미공개
	대만	'24.7.25. (Announced)	BDx Taiwan Hyperscale Data Centre Project	75
	홍콩	'24.7.25. (Announced)	BDx Hong Kong Brownfield Hyperscale Data Center Project	75
	일본	'24.7.11. (Sale Agreement Signed)	Tokyo Data Centre 1 Acquisition Project	147.355
	필리핀	'24.7.8. (Announced)	Dito CME Holdings Stake Acquisition Project	미공개
	호주	'24.7.4. (Announced)	ASD/AWS Australia Top Secret Cloud Data Centers Project	1345.39
유럽	프랑스	'24.8.15. (Announced)	Brookfield Infrastructure Partners Data4 DC Asset Acquisition Project	미공개
	핀란드	'24.7.16. (Agreement Signed)	Hyperco Koria Data Centre Project	미공개
	네덜란드	'24.7.1. (Contract Signed)	Eemshaven 2 Data Centre Project	미공개